

Familiarisation Text

기자: 이러한 채팅 언어의 사용을 십대의 문화 현상으로 보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회장: 채팅 언어 때문에 세대 간에 대화가 잘 안되고 또 채팅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문화 현상이라고 봅니다. '

Section I — Listening and Responding

Part A

Question 1

예슬: 야, 진호야

너 괜찮니?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.....!

진호: 응, 아무것도 아냐.'

예슬: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니?'

야, 이 누나한테 얘기해봐. 니가 나한테 숨길 일이 뭐가 있니?'

진호: 누나 좋아하네. 자꾸 한 달 먼저 태어났다고 생색은.'

예슬: 야 한 달이면 30일에다 720시간 17280초 라구 거저가 아니라고. '

진호: 또 시작이다. 지금은 받아 줄 기분이 아니거든. 그만해. '

사실은 우리 아빠가 이민가제.'

예슬: 그냥 말로만 그러시는 거겠지. '

사오정 이다. '오륙도 라 해서 40대 50대 분들이 회사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겠지. '우리 아빠도 회사에서 힘들다고 "우리도 이민이나 갈까"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하신 적이 있어. '

진호: 아니 근데 사오정, 오륙도가 무슨 뜻인데?'

예슬: 너의 그 영원한 무지의 소치를 이 누나가 어찌 하오리까? '

너 그것도 모르니. '사오정은 45세가 청년이란 뜻이고, '오륙도는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이란 뜻이잖아. '그만큼 나이 들수록 직장에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뜻이야. '

진호: 그렇구나. 하지만 우리 아빠는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었나봐. 이민 상담을 비롯해 벌써 수속까지 다 하셨다고. '그리고 우리 아빠는 내가 대학 못 가는 꼴을 볼 수 없으시데.'

예슬: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잘 말씀 드려봐. 너도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텐데. 뭐 니 동생이야 초등학생이니 별 탈 없이 적응하겠지만.'

야, '그리고 넌 여기서도 공부하고 담쌓고 지내는데, '환경이 바뀐다고 뭐 안에서 새는 쪽박이 나가서는 안 샌다니.'

진호: 그러게 말야. 난 이대호가 좋다고. '공부 못 해서 대학 못 가면 어때. '전문대 가면 되지.' 그리고 흥규하고 너, '내 친구들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요.'

예슬: 근데 흥규한테는 얘기 했니? 흥규가 실망이 굉장히 클텐데. 너희는 10년 넘은 죽마고우잖아. '

진호: 얘기 했지. '그랬더니, '나 보고 매국노 래. '국가를 배신하고 딴 나라로 도망간다고. '그러면서 군대 간다고 국민들과 약속하고 몰래 미국 시민권 받은 유승준과 다를바가 없다나. 비유 끝내주지? 미국 원정 출산 얘기도 길게 늘어 놓더라고.'

예슬: 그러게. 흥규가 충격이 컷 던가 보구나. 그래서 연락을 딱 끊었나? '

어머, 너 그러고 보니 좋은게 한 두 가지가 아니네. 진호 너 참 좋겠다. '

진호: 위로는 못 해 줄망정 너 마저 약 올리냐? 난 지금 심각하다고.'

Section I — Listening and Responding

Part B

Question 2, Text 1

<군함처럼 큰 신발에 허리띠를 엉덩이에 매고 긴 바지 자락으로 땅바닥을 쓸고 다니는 아이들, '운동장에 버려진 휴지를 주으라 하면 "제가 안 버렸는데요"라고 꿈무니를 빼는 아이들. "장차 무엇이 되고 싶니?"라고 물으면 "글쎄요"라고 대답하는 꿈이 없는 아이들. '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키면 입을 짹 다물면서, '남이 발표를 하면 잘난 체한다고 비아냥 거리는 비겁한 아이들. "니가 반장이냐?"고 물으면 "그런 것 같은데요."라고 말하는 불확실한 아이들>

어른들의 눈에 비친 청소년들의 모습이다. '버릇없고 끈기 없으며, '사리판단에 미숙하고, '세상물정 모르고 나약하다고 비난한다. '그런가 하면 청소년들이 말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이렇다. '

<잘못이 확실한데도 체면 때문에 인정 못하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.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사는 통에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노는 이중인격자. '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는,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콘크리트 같은 사고의 소유자. 시대변화에 적응 못하는 걱정이 팔자인 세대>

크게 보자면 다 부모요 자식인데, '한 자리에 모여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어야 할 두 세대가 어찌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.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이며 이해하지 못 할 것이라 느끼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대해 미리 담을 쌓고 지낸다. 반면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에 대해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. '

이렇듯 두 세대는 서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.' 이러한 세대차이 혹은 세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? 심리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극히 사소한 데에 있지 생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등 거창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.'

세상은 어느 한 세대의 힘만으로 움직여 지는 것이 아니며 건전한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.'

Section I — Listening and Responding

Part B

Question 2, Text 2

기자: 안녕하세요? '청소년 잡지 푸른시대'에서 나온 이상민 기잡니다. '어른들이 느끼시는 세대차이에 대해 정리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떨까?' 많이 궁금했거든요. '어른들은 학생들이 자유분방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가요?'

학생: 네, '매우 직설적이고 솔직해졌어요. '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라고 들려주셔도 재미없으면 분위기 썰렁 하죠. 저희들은 하고 싶은 말은 다하고 살아요.'

기자: 그런 점들이 신선하고 귀여운 한편 예의를 너무 모르는 것같아 염려스럽다는 말씀도 하시던데, 학생들이 생각하는 신세대의 단점은 뭔가요?'

학생: 우리세대의 단점? 글썄요. 구태여 고른다면 뒤를 생각 안하고 무턱대고 일을 저지르는 거. 하지만 차라리 저희가 기성세대보다 낫지 않아요? 저희는 그래도 잘못을 하고 나면 모든걸 인정하기라도 하잖아요.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기성세대들은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겉으로는 뻔뻔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.'

기자: 어른들은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염려하시던데?'

학생: 자기 행동을 책임지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개인주의가 뭐가 나쁘죠? 개인주의가 아니라면 사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. '자기가 얼마나 쟁취를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개인주의'를 타할 수 있을까요?'

기자: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매우 심각해졌네요. '그럼 청소년들과의 세대차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'

학생: 제가 아는 어른 중에 자기주장이 아주 뚜렷한 분이 계세요.'

다른 의견을 한 마디라도 하면 막 화가 나서 어쩔줄을 모르세요.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 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걸 인정 못하시는 것 같아요.'

기자: 문제는 대화단절로 인한 사고방식의 차이인데.....기성세대한테는 이런 고민도 있는 거 같거든요. "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라거나, 유행어, 인기 연예인을 너무 모르는 것은 아닌가" 하는..... 이런 이유들이 세대간의 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닐까요?'

학생: 그런 거 아시려고 할 필요 없어요. 그런다고 세대차이가 없어지나요?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.'